

제주다움에 비취본 영주십경

윤 용 택*

국문 요약

영주십경(瀛洲十景)은 조선 후기 제주의 향토학자이던 매계(梅溪) 이한우(李漢雨, 1818~1881)가 손꼽은 제주섬의 고유풍토성 짙은 경관 정체성을 표출하는 10 경관으로 화산섬이라는 독특한 지형학적 특성, 온대와 아열대의 전이지대라는 따뜻한 기후적 특성, 섬이라는 해양문화적 특성, 몽골강점 이후 군마공급지와 신선의 고장이라는 역사문화적 배경 속에 탄생되었다.

여기서는 우리나라 경관문화의 모델이 되는 소상팔경(瀟湘八景)이나 관동팔경(關東八景) 등을 살펴보고, 그것들이 영주십경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았다. 제주에는 매계의 영주십경 이전에도 야계(冶溪) 이익태(李益泰, 1633~1704)의 탐라십경과 응와(凝窩) 이원조(李源祚, 1792~1871)의 영주십경 등이 있지만, 매계의 영주십경은 그것들보다 체계적이고 제주섬의 정체성을 잘 드러낸다.

영주십경에는 많은 서사적 요소가 있고, 그것들을 예술적으로 승화시킨 시, 서예, 그림, 음악 등이 더러 있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다움을 잘 보여주는 영주십경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소상팔경과 관동팔경의 경우처럼 영주십경을 소재로 한 보다 더 많은 시, 서예, 그림, 사진 등이 나와야 하고, 영주십경에 대한 인문학적 구명(究明)이 필요하다.

* 제주대학교 철학과 교수

주제어: 제주도, 영주, 영주십경, 탐라십경, 소상팔경, 관동팔경,
매계 이한우, 응와 이원조, 야계 이익태

I. 들어가는 말

아무리 빼어난 자연도 서사적 요소가 결합된다면 그저 스쳐지나가는 산이요 바다요 바위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각 지역에서는 그 지역의 대표경관을 지정하여 그곳의 빼어난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서사적 요소를 가미하려고 노력한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에서는 중국의 소상팔경(瀟湘八景)과 무이구곡(武夷九曲) 등을 이상향으로 간주하였고, 그것들을 모방하여 시로 읊고 서화(書畫)로 그려내어 시첩(詩帖), 도첩(圖帖), 병풍(屏風) 등으로 제작하는 문화를 형성하기도 하였다.

제주섬은 세계가 공인할 만큼 빼어난 경관을 자랑한다. 특히 섬 중앙에 위치한 남한 최고봉 한라산, 곳곳에 산재한 360여개 오름, 생명의 숲인 곶자왈, 신비를 자아내는 용암동굴, 신들의 정원이라 불리는 하천과 계곡, 그리고 현무암 해안 등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등으로 등재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제주자연이 세계가 공인할 정도로 빼어난 경관인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그에 대한 인문적 성찰이 부족했다. 따라서 여기서는 영주십경(瀛洲十景)을 중심으로 제주자연에 대한 인문학적 분석을 시도해보겠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과 『영주지(瀛洲誌)』에서 제주(濟州)를 영주(瀛洲)라고 적시한 이후로 영주는 제주의 별칭이 되었다.¹⁾ 영주(瀛洲)는 삼신산(三神山)의 하나인 영주산(瀛洲山)에

서 비롯된 지명으로 신선이 사는 곳을 의미한다. 이상향으로서 삼신산은 전국시대(戰國時代) 진시황(秦始皇)이 장생불사약을 구하려 했다는 전설 이후로 우리나라, 중국, 일본 등에서 관심의 대상이었다.

영주십경(瀛洲十景)은 조선 후기 향토학자이던 매계(梅溪) 이한우(李漢雨, 1818~1881)가 체계화한 제주섬의 10경승(景勝)으로, 많은 이야기거리가 담긴 제주의 대표경관이다. 영주십경은 화산섬이라는 제주섬의 독특한 지질 및 지형학적 특성[성산출일(城山出日), 사봉낙조(紗峰落照), 정방하폭(正房夏瀑), 영실기암(靈室奇巖), 산방굴사(山房窟寺)], 온대와 아열대의 전이지대에 위치한 기후적 특성[굴림추색(楡林秋色), 녹담만설(鹿潭晚雪)], 섬이라는 해양문화적 특성[산포조어(山浦釣魚)], 몽골강점 이후 군마공급지라는 역사적 배경[고수목마(古藪牧馬)], 신선의 고장이라는 문화적 배경[영구춘화(瀛邱春花), 녹담만설] 속에 탄생되었다. 그런 점에서 영주십경은 제주의 자연, 역사, 문화 등이 반영된 풍토성 짙은 경관 정체성을 표출하고 있다.

최근에 제주섬은 중국인과 일본인들이 많이 찾는 국제관광지가 되었고, 제주자연이 세계가 공인할 정도로 빼어난 경관인데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인문적 성찰이 부족했다. 서사적 요소가 결여된 자연은 그저 스쳐지나가는 산이요 바다요 바위일 뿐이다. 따라서 영주십경과 관련된 예술작품들과 그에 대한 인문학적 탐구는 제주의 자연과 경관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것이다.

여기서는 우선 우리나라 경관문화의 모델이 되는 소상팔경(瀟湘八景)이나 관동팔경(關東八景) 등을 살펴보고, 영주십경이 그들과 어

1) 『新增東國輿地勝覽』 卷三十八 全羅道, 「濟州牧」 <郡名>: 耽羅 毛羅 耽毛羅 東瀛洲

『瀛洲誌』: 瀛洲 在全羅道南海中 水路九百七十餘里 本九韓之一 ….

떻게 다른지를 살펴볼 것이다. 다음에는 영주십경 이전의 제주의 경관문화와 그 한계를 지적하고, 매계(梅溪)의 영주십경 속에 들어 있는 제주다움을 드러내보고자 한다.

II. 경관문화의 모델

1. 소상팔경

우리나라에는 중국의 소상팔경(瀟湘八景)을 본 따서 수많은 팔경(또는 십경)을 선정해 놓고 있다. 소상팔경, 즉 중국의 소수(瀟水)와 상수(湘水) 주변의 팔경은 단순히 아름다운 경관이 아니라 동아시아 선비들이 그리는 이상향이었다. 그러기에 산시청람(山市晴嵐; 아지랑이에 휩싸인 산시 풍경), 연사모종(煙寺暮鐘; 해저물녘 내 낚 절에서 울리는 종소리), 소상야우(瀟湘夜雨; 소상강에서 밤비 내리는 풍경), 원포귀범(遠浦歸帆; 먼 포구로 돌아가는 배), 평사낙안(平沙落雁; 넓은 모래밭에 내려앉는 기러기), 동정추월(洞庭秋月; 동정호에 비추는 가을 보름달), 어촌낙조(漁村落照; 어촌의 해지는 풍경), 강천모설(江天暮雪; 눈 내리는 강변의 저녁 풍경) 등의 소상팔경은 단지 중국의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된 경관이 아니라,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도 천년 넘게 인기 있는 시제(詩題)와 화제(畫題)가 되었다(전경원, 2010: 13쪽).

소상팔경은 특정 장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곳의 특정 장면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소상팔경에서는 산시지역(山市), 내 낚 절(煙寺), 소상강(瀟湘), 먼 포구(遠浦), 넓은 모래밭(平沙), 동정호(洞庭), 어촌(漁村), 강천(江天) 등의 장소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거기에서 보는 특별한 장면이 중요하다. 즉 아지랑이(晴嵐), 저녁종소리(暮鐘), 밤에 내리는 비(夜雨), 돌아가는[돌아오는] 배(歸帆), 내려앉는 기러기(落雁), 가을 달(秋月), 저녁노을(落照), 저녁 눈(暮雪) 등이 중요하다. 따라서 소상팔경에서 '산시청람'은 '산시'라는 지역이 아니라, '아지랑이에 휩싸인 산시의 풍경'을 말하고, '동정추월'은 '동정호'가 아니라 '동정호에 비추는 가을 달'을 말한다.

〈표 1〉 소상팔경을 따른 우리나라의 팔경

소상 팔경	산시 청람	연사 모종	소상 야우	원포 귀범	평사 낙안	동정 추월	어촌 낙조	강천 모설
여주 팔경	이릉 두견	신록 모종	파사 파우	연탄 귀범	양도 낙안	마암 어등	팔수 장림	학동 모연
비인 팔경	중중 신루	관사 모종	은영 소도	연포 귀범	미망 대해	송평 추월	점점 나계	둔영 수고
경포 팔경	녹두 일출	한송 모종	홍장 야우	강문 어화	환선 취적	죽도 명월	증봉 낙조	초당 취연
거제 팔경	죽림 서봉	수정 모종	각산 야우	연진 귀범	항사 낙안	내포 어화	오암 낙조	오송 기운
청도 팔경	오산 조일	운문 효종	용각 모우	유천 어화	낙대 폭포	자계 제월	공암 풍벽	유호 연화
해운 팔경	해운 대상	양운 폭포	구남 온천	오륙 귀범	춘천 귀어	봉대 집화	우산 낙조	장지 유수
수영 팔경	봉대 월출	연산 모종	제송 직화	운대 귀범	남장 낙안	진두 어화	자산 낙조	백산 만취
사상 팔경	금정 명월	운수 모종	칠월 해화	원포 귀범	평사 낙안	팔월 료화	서산 낙조	구덕 조무
다대 팔경	아미 안월	야망 어창	물운 관해	삼도 귀범	팔봉 반조	남림 속하	화손 낙조	두송 만취
금정 팔경	금강 만풍	내원 모종	청련 야우	대성 운수	의상 망해	계명 추월	어산 노송	고당 귀운
강동 팔경	밀유 산림	분곡 초가	옥봉 청하	정포 어범	방천 위운	용담 명월	궁현 낙조	용산 서운
여수 팔경	봉강 청람	한산 모종	예암 초적	원포 귀범	중포 어가	고소 제월	마수 조옥	죽도 청풍
변산 팔경	지포 신경	소사 모종	월명 무애	채석 범주	직소 폭포	웅연 조대	서해 낙조	개암 고적

우리나라에서도 각 지역에서 팔경을 지정해놓고 있는데, 그 가운데 화성팔경, 여주팔경, 비인팔경, 경포팔경, 거제팔경, 해운팔경, 수영팔경, 사상팔경, 다대팔경, 금정팔경, 강동팔경, 여수팔경, 변산팔경 등은 거의 소상팔경 형식을 빌리고 있다. 이를테면 지역의 아름다운 경관을 소상팔경을 모델 삼아 ‘··모종’ ‘··야우’ ‘··귀범’ ‘··낙안’ ‘··명월’ ‘··낙조’ 등과 같이 사자성어(四字成語)로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특정 장소의 특정 장면을 사자성어로 나타낸 소상팔경은 우리나라 경관문화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제주다운 경관을 사자성어로 집약한 영주십경 역시 소상팔경의 영향을 간접적으로 받았다고 볼 수 있다.

2. 관동팔경

우리나라의 팔경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관동팔경(關東八景)이다. 관동팔경은 일반적으로 통천 총석정(叢石亭), 고성 삼일포(三日浦), 간성 청간정(淸澗亭), 양양 낙산사(洛山寺), 강릉 경포대(鏡浦臺), 삼척 죽서루(竹西樓), 울진 망양정(望洋亭), 평해 월송정(越松亭) 등을 이르는 대관령 동쪽 지방의 대표경관이다.²⁾ 관동팔

2) 관동팔경을 구체적으로 지적한 것은 조선중기 삼척부사였던 미수 허목(眉叟 許穆, 1595~1682)이 조선 현종3년(1662)에 쓴 『죽서루기관』에서이다. 그는 관동지방의 뛰어난 경관 가운데 여덟 곳, 즉 통천 총석정, 고성 삼일포와 해산정, 간성 영랑호, 양양 낙산사, 강릉 경포대, 삼척 죽서루, 평해 월송정을 꼽았다. "관동 지방에는 이름난 곳이 많다. 그중에도 빼어난 곳이 여덟이니, 즉 통천(通川)의 총석정(叢石亭), 고성(高城)의 삼일포(三日浦)와 해산정(海山亭), 수성(遂城)의 영랑호(永郎湖), 양양(襄陽)의 낙산사(洛山寺), 명주(溟州)의 경포대(鏡浦臺), 척주(陟州)의 죽서루, 평해(平海)의 월송포(越松浦)인데, 유람하는 자들이 유독 죽서루를 제일로 손꼽다...(東界多名區 其絶勝八 如通川叢石亭

경은 중국의 소상팔경 못지않게 우리나라 시인과 화가들이 즐기는 시제(詩題)와 화제(畫題)의 대상이다.

관동지방 절경은 고려 충숙왕 17년(1330) 근재 안축(謹齋 安軸, 1287~1348)이 강원도 존무사(江原道存撫使)로 있다가 돌아오는 길에 총석정, 삼일포, 양양, 경포대, 죽서루, 월송정 등을 노래한 경기체가 <관동별곡>을 지은 바 있다. 하지만 관동 절경이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것은 그로부터 250여년 후인 조선 선조 13년(1580) 송강 정철(松江 鄭澈, 1536~1593)이 강원도 관찰사로 부임하여 관동지방을 유람하면서 총석정, 삼일포, 의상대, 경포대, 죽서루, 망양정 등을 찬탄한 가사 <관동별곡>을 통해서이다.

관동팔경은 소상팔경의 경우와는 사뭇 다르다. 관동팔경, 즉 청간정, 경포대, 삼일포, 죽서루, 낙산사, 망양정, 총석정, 월송정은 아름다운 경관을 지닌 장소에 지은 정자(亭子), 누대(樓臺), 사찰 등의 인위적 공간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그것을 둘러싼 주변지역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는 총석정이나 경포대가 본래는 정자나 누대의 명칭이지만, 지금은 그것들이 소재한 지역을 통칭하는 걸로 보아서도 알 수 있다.

관동팔경은 소상팔경과는 달리 특정 장면보다는 아름다운 경관을 보여주는 특정 장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장소에는 누대(樓臺)와 정자(亭子)와 사찰(寺刹) 등이 조성되어 있다. 따라서 관동팔경은 삼일포를 제외하고는[실제로는 삼일포에도 사선정(四仙亭)이라는 정

高城三日浦海山亭 迎城永郎湖 襄陽洛山寺 溟州鏡浦臺 陟州竹西樓 平海越松亭 遊觀者 獨稱西樓爲第一…。 許穆, <竹西樓記>; 그리고 강원도 관찰사였던 김상성(金尙星, 1703~1755)은 1746년(영조 22) 기존의 관동팔경에 강원도 흡곡의 시중대(侍中臺), 고성(高城)의 해산정(海山亭)을 더해 화원에게 경치를 그리게 하여 그 그림첩을 친한 이들에게 돌려보게 한 후에 시를 받아 1748년 시화첩 『관동십경(關東十境)』을 완성하였다(김상성 외, 1999).

자가 있다], ‘··정(亭)’ ‘··대(臺)’ ‘··루(樓)’ ‘··사(寺)’ 등으로 되어 있어서 굳이 사자성어라는 형식을 빌릴 필요가 없다. 관동팔경은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보기 위해 전망 좋은 곳에 지은 누대와 정자 자체가 불만 한 인공경관이라는 걸 감안한다면 관동팔경은 단순한 자연경관이 아니라 자연과 인공이 어우러진 복합공간이다. 그리고 총석정(叢石亭)이나 경포대(鏡浦臺)는 단순한 하나의 정자나 누대를 넘어서 그 지역을 나타내는 지명으로까지 의미 확장하게 되었다.

관동팔경은 우리나라 시인묵객의 주요 시제와 화제가 되었으며, 특히 진경시대(眞景時代)에 그려진 김상성(1703~1755)의 시화첩 『관동십경(關東十境)』과 정선(1676~1759), 허필(1709~1768), 강세황(1713~1791), 김홍도(1745~1806?) 등의 <관동팔경도(關東八景圖)> 등은 우리나라 경관문화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조상현, 2006). 이처럼 관동팔경이 우리나라의 대표경관으로 자리잡는 데는 고려말 안축(安軸)에서 조선 후기 진경시대의 화가들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소상팔경이나 관동팔경에서 보듯이 ‘○○팔경(십경)’이 있으려면 우선 빼어난 자연경관이 있어야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 경관을 특정할 수 있는 심미안과 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지성인이 있어야 하고, 그것들을 품제(品題)하고 제영(題詠)할 수 있는 뛰어난 문인이 있어야 하며, 그것을 차운하거나 화답할 수 있는 동학나 후학 집단들이 존재해야 하고, 그렇게 읊은 시나 장면을 글씨[書]로 쓰거나 그림(畵)으로 그려내는 예인(藝人)이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널리 확산하기 위해서는 글씨와 그림을 시화첩이나 병풍으로 만들어 소장하면서 이른바 와유산수(臥遊山水)를 즐길 수 있는 여유있는 재력(財力) 집단이 존재해야 한다.

특정한 하나의 장소나 장면이 아니라 여덟(또는 열) 곳의 장면을

시나 그림으로 격조있게 나타내려면 웬만한 필력(筆力)으로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아름다운 자연을 경승(景勝)으로 격상시키기 위해서는 그것을 시서화(詩書畵)로 작품화할 수 있는 엘리트 집단, 더 나아가 그 작품을 즐기며 감상할 수 있는 문화적 소양 집단, 그것을 소장할 수 있는 재력 집단 등이 있어야 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경관문화는 철저하게 선비문화요 양반문화라고 할 수 있다.

III. 제주의 경관문화

1. 매계 이한우 이전의 경관문화

매계(梅溪) 이한우(李漢雨[震], 1818~1881)가 영주십경(瀛洲十景)을 품제하기 이전에도 백록담, 영실, 정방폭포, 산방굴사 등의 절경을 노래한 제주목사(濟州牧使)들은 많다. 1609년 도입한 남봉(南峰) 김치(金緻, 1557~1625), 1651년 도입한 태호(太湖) 이원진(李元鎭, 1594~?), 1735년 도입한 노봉(蘆峰) 김정(金仁政, 1670~1737) 등이다(제주문화원, 2005: 135~171쪽). 특히 야계(冶溪) 이익태(李益泰, 1633~1704), 병와(瓶窩) 이형상(李衡祥, 1653~1733), 응와(凝窩) 이원조(李源祚, 1792~1871) 등은 제주섬의 경관을 논하거나 품제함으로써 매계의 영주십경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1) 야계의 이익태의 탐라십경

제주섬의 십경을 처음으로 특정한 이는 1694년 도입한 야계(冶

溪) 이익태(李益泰, 1633~1704)이다. 그는 제주의 뛰어난 열 곳을 선정하여 탐라십경(耽羅十景)이라 하였다. 이른바 조천관(朝天館), 별방소(別防所), 성산(城山), 서귀소(西歸所), 백록담(白鹿潭), 영곡(靈谷), 천지연(天池淵), 산방(山房), 명월소(明月所), 취병담(翠屏潭)이다. 그는 탐라십경을 선정하여 사적(事跡)을 서술하고 그림으로 그리게 한 이유를 <탐라십경도서(耽羅十景圖序)>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본도는 멀리 바다 밖 천리에 있어, 주위가 5백리이다. 한라산은 그 가운데 있는데 동서가 2백리이고, 남북이 70리이다. 사람과 물산이 번성하며, 산과 바다가 험하게 가로 막았고 진상하는 과일이 풍요롭게 맺혀, 나라의 요새지로서 국경방비가 훌륭히 되어 있다. 기묘한 바위 폭포는 곳곳에서 볼 수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모두가 등한히 보고 넘겨버려서 사실을 기록한 저술이라고 칭할 게 없다. 그러므로 육지에 있는 사람들은 들어 아는 게 별로 없어 이게 애석하였다. 내가 몇 년 동안 두 번을 순력(巡歷)하면서 볼 만한 곳으로 앞 사람들이 족적(足跡)이 닿지 않는 곳을 자세하게 조사하고 제주를 두루 밟으며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난 십경을 그림으로 그려 한 개의 자그마한 병풍을 만들고 거기에 사적(事跡)을 서술하여 보기에 편리하도록 하였다(이익태, 1696: 107쪽).

야계는 제주의 국방경비와 경관이 매우 뛰어난 데도 그것이 알려지지 않은 것에 대해 안타까워서 그 뛰어난 열 곳을 그리게 했는데 현재 그림으로 전해지는 것은 백록담, 영곡, 산방, 취병담, 명월소 등이다.³⁾

3) <탐라십경도> 가운데 국립민속박물관에 산방, 백록담, 영곡이 소장되어 있고, 일본 고려미술관에 명월진, 취병담, 산방이 소장되어 있다. 고영자에 따르면, '성산', '서귀진', '천제담'을 1975년 일본에서 간행한 『李朝民畫』(講談社刊)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영자, 2009: 16쪽).

백록담(白鹿潭)

한라산 맨 꼭대기는 하늘에 높이 솟아 돌이 둥그렇게 둘러 있는데, 주위가 약 10리 이다. 그 가운데가 마치 술과 같이 무너져 내려갔는데 그 안에 물이 가득하다. 담의 북쪽 구석에 기우단이 있다. 숲이 벌여 있고 사계절 긴 봄마냥 냉쿨향기가 두루 멀리 미치어 향기가 신 발에까지 스며든다. 산열매는 칠과 같이 검은가 하면, 혹은 주사처럼 빨개서 맛은 달콤하고 또한 향이 있어 진짜 선과이다. 산위에는 바람 기운이 항상 싸늘하여 비록 한여름이라 하더라도 오히려 덧옷을 생각나게 한다. 끝간 데를 눈으로 보면 사방이 바다인데 물과 하늘이 서로 맞붙어, 가까이는 여러 섬들이 눈 밑에 별처럼 벌여 있고, 멀리는 등래, 영파, 유구, 안남, 일본이 역시 아득한 가운데에 어렴풋하게 모두 가리킬 수 있다. 웅장한 경치를 큰 뜻을 품고 구경함은 이보다 더하지는 않을 것이다. 창해가 술잔이요, 천하가 작다는 것은 아마 이를 두고 말한 것이리라. 옛날에 어떤 산지기가 밤에 못가에 엎드려 있는데 천 몇 백이 되는 사슴 떼가 와서 이 가운데서 물을 마시는 것을 보았다. 어떤 사슴 한 마리가 우뚝 뛰어나고 색깔이 하얀데 등 위에 백발의 한 노인이 타고 있었다. 산지기는 놀랍고 괴이하여 감히 범접하지를 못하여 다만 뒤떨어진 사슴 하나를 쏘았다. 조금 있으니까 노인이 사슴 떼를 점검하는 모양 같았는데 긴 휘파람을 한 번 소리 내자 갑자기 보이지 않았다. 못의 이름을 얻게 된 것이 대략 이러하다고 한다(이익태, 1696: 112~113쪽).

백록담의 경우 서귀포 앞바다의 섬들과 한라산 정상 주변 경관들을 매우 사실적으로 기술하고 그것들이 그림으로 묘사되고 있으며, 백록에 대한 전설 역시 그림 속에 그대로 잘 묘사되고 있다.

영곡(瀛谷)

한라산 서쪽 기슭 대정현 지경에 있다. 백록담에서 남쪽으로 내려 오다 서쪽으로 방향을 바꿔 산등성이를 넘고 골짜기를 건너 25리를 오면, 낭떠러지가 걸려 있고 절벽이 깎아 세워져서 층층이 기암괴석들이 나열되어 있다. 그 꼭대기의 장관은 마치 장군이 칼을 찬 것 같고, 아름답기가 미녀가 쪽을 진 것, 승이 절을 하는 것, 신선이 춤을 추는 것, 호랑이가 웅크리고 있는 것, 봉이 날아오르는 것 같이 크고 작고, 높고 낮은 것들이 물체의 모양을 안 한 것이 없어, 속칭 오백장

군골, 혹은 천불봉이라고 하고, 일명 행도골이라고도 한다. 그 밑으로
는 샘이 솟아 계곡을 이루어 길게 흘러가며 마르지 않는다. 골짜기는
넓고 평평하여 소나무가 질푸르려 하늘을 찌른다. 목장이 여기저기에
있고 비단같은 구름이 산에 두루 퍼져있다. 옛날에는 자그만 사찰이
있었으나 지금은 옮겨 갔다. 존자암이었던 폐지에는 계단과 초석이
아직도 완연하다. 대개 한라가 모두 석산이므로 산기슭도 장엄하지만,
유독 이 한 쪽면의 눈 쌓인 봉우리는 옥을 배열한 듯 마치 풍악의 중
향성과 같아 또한 이채롭다(이익태, 1696: 113-114쪽)

영곡(瀛谷)의 경우도 서술된 내용이 그대로 그림에 반영되고 있
다. 이를테면 오백장군 기암의 갖가지 형상들에 대한 야계 이익태
의 주관적 묘사, 즉 칼 찬 장군, 쪽진 아름다운 미녀, 절하는 스님,
춤추는 신선, 웅크린 호랑이, 날아오르는 봉황 등이 그대로 그려져
있다. 그리 본다면 <탐라십경도>는 야계의 서술을 바탕으로 그려졌
음을 알 수 있다.

산방(山房)

대정현의 동쪽 10리 거리에 외로운 산이 해변에 우뚝 솟아 있다.
전체가 하나의 돌로 되어 아주 기이하고 험하다. 앞면의 반허리에 한
개의 굴이 있어 자연히 석실을 이루어 마치 방안에 들어간 듯하다.
그 천정 바위 사이에서 물이 새어나와 방울방울 떨어지는데 통을 놓
아두고 물방울을 하루 종일 받아 모으면 겨우 한 동이가 되는데 맛은
매우 맑고 상쾌하다. 전설에 아주 옛날 사냥꾼이 한라산에 올라가, 활
을 쏘아 하늘의 배 가까이 이르자, 상체가 노하여 주봉을 꺾어 여기
에 옮겨 세웠다고 한다. 그 남쪽에 돌구멍이 있는데 이름을 암문이라
하며, 그 북쪽에 또 큰 구멍이 있는데 깊이를 잴 수 없다. 송악과 형
제암이 앞바다에 점철하고, 용두연대가 머리를 내민다. 왼쪽 기슭에
향훼와 자지가 두루 자라고, 산머리에는 도기가 사람들에게 배어들고
선풍이 길을 인도하는데, 어찌 높은 소나무가 여기에서 일찍부터 심
호흡을 하여 경장영액을 아직까지 간직했다가 그렇게 스며나오는 것
이 아니라 하겠는가(이익태, 1696: 115쪽).

위에서 보듯이 산방(山房)에도 백록담 경우처럼 주변 경관에 대한 객관적 묘사와 전설이 있다. 하지만 백록담과는 달리 '산방'에서는 주변 경관만 묘사되고 전설 내용은 그림 속에 묘사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국립민속박물관과 일본 고려미술관에 전해지는 <탐라십경도>의 두 가지 산방 그림의 서술 내용과 그림 내용은 동일하나 그 기법이 전혀 다른 것으로 보아, <탐라십경도>는 수차례 모사되었던 것으로 추측된다.⁴⁾ 그리고 19세기에 <탐라십경도>를 모사한 것으로 보이는 <제주십경도>는 전체가 전해지고 있어서 <탐라십경도>의 원래 모습을 어느 정도 유추해볼 수 있다.⁵⁾

1696년경에 그려진 <탐라십경도>는 김상성(金尙星, 1705~1755)의 시화첩 『관동십경』보다 50여년 앞서고 있다. 야계(冶溪)가 탐라십경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게 하고 거기에 직접 사적(事跡)을 기술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특정 장소가 경승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경관이 기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많은 사람의 입에 오르내릴 수 있는 그 장소와 얽힌 사연, 즉 전설이나 역사적 사실들이 겸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야계의 탐라십경에는 자연경관 6개소뿐만 아니라 방호소(防護所) 같은 시설물 4개소가 들어 있는 것으로 보아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더불어 국방경비를 위해서 중요한 곳을 설정하고 있어서 모두가 빼어난 경관이라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하지만 야계의 탐라십경은 시간이나 특정 장면이 배제된 공간, 특히 정자와 누대를 경관의

-
- 4) <탐라십경도> 가운데 국립민속박물관에 산방, 백록담, 영곡이 소장되어 있고, 일본 고려미술관에 명월진, 취병담, 산방이 소장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산방 그림은 형태는 흡사하나 기법은 다른 것으로 보아 그 시기를 달리함을 알 수 있다(국립제주박물관, 2015: 39쪽, 44쪽).
- 5) 국립민속박물관에 소장된 19세기 <제주십경도>는 <탐라십경도>와 그림과 거기에 기술된 내용이 동일한 것으로 보아 그것을 모본(模本)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국립제주박물관, 2013: 102쪽).

핵심으로 보던 관동팔경과 맥락이 닿는다고 볼 수 있다.

2) 병와 이형상의 제주팔경

1702년 도입한 병와(瓶窩) 이형상(李衡祥, 1653~1733)은 제주도 각 고을을 순력(巡歷)하면서 자연, 역사, 산물, 풍속 등을 기록하여 『탐라순력도(耽羅巡歷圖, 1702)』를 남겼고, 『남환박물(南宦博物), 1704』에서 용연, 용두암, 진모살, 협재굴, 도근천, 무수천, 동무협, 고망난돌, 일출봉, 정방연, 천지연, 천제연, 산방산, 송악산 등을 불만한 경승으로 꼽았다(이형상, 1704: 74~85쪽). 『탐라순력도』 속의 성산관일(城山觀日), 정방탐승(正房探勝), 굴림풍악(橋林風樂), 산방배작(山房盃酌), 산장구마(山場驅馬) 등을 통해서 300년 전의 성산출일, 정방하폭, 굴림추색, 산방굴사, 고수목마 등의 모습을 유추해볼 수 있다.

그리고 병와(瓶窩)는 그와는 별도로 한라채운(漢擎彩雲, 한라산의 채색 구름), 화북제경(禾北霽景, 화북의 맑게 갠 경치), 김녕촌수(金寧村樹, 김녕의 꽃자왈), 평대저연(坪代渚煙, 평대의 물가에 낀 안개), 어등만범(魚等晚帆, 행원의 저녁 고기배), 우도서애(牛島曙靄, 우도의 구름 낀 모습), 조천춘랑(朝天春浪, 조천의 봄 바다물결), 세화림월(細花林月, 세화 숲에서 보는 서리 내리는 밤의 달)을 제주팔경으로 꼽았다.⁶⁾ 병와의 제주팔경은 제주섬 전체가 아닌 동

6) 漢擎彩雲 金寧村樹 魚登晚帆 朝天春浪 禾北霽景 坪代渚煙 牛島曙靄 細花林月
 【雲籠圓嶠彩園幽禾北晴光晚更優樹繞金寧村壘遠煙生坪代渚華收輕帆暮掛魚
 登出暝靄晨從角鳥浮浪蹴朝天春晝永細花霜月喚林愁】 李衡祥, 『瓶窩全書 耽羅
 錄』 (왕실도서관 장서각 디지털 아카이브)

http://yoksa.aks.ac.kr/jsp/aa/VolView.jsp?mode=&page=4&fcs=&fcsd=&cf=&cd=&gb=&aa10up=kh2_je_a_vsu_55013_000&aa10no=kh2_je_a_vsu_55013_001&aa15no=001&aa20no=55013_001_0038&gnd1=&gnd2=&keywords=&rowcount=10
http://yoksa.aks.ac.kr/jsp/aa/ImageView.jsp?aa10up=kh2_je_a_vsu_55013_000&a

북지역의 경관에만 치우쳤다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그의 제주팔경은 특정 장소의 특정 장면을 선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상팔경의 전통과 맥이 닿고 있어서 응와(凝窩)와 매계(梅溪)가 영주십경을 정착하는 데 일조를 하고 있다.

3) 응와 이원조의 영주십경

1841년 도입한 응와(凝窩) 이원조(李源祚, 1792~1871)는 <영주십경제화병(瀛洲十景題畫屏)>에서 영주십경을 10편의 7언절구로 폼제하였다. 이른바 영구상화(瀛邱賞花, 들렁귀에서 꽃구경), 정방관폭(正房觀瀑, 정방에서 폭포 구경), 굴림상과(橘林霜顆, 굴밭의 잘 익은 열매), 녹담설경(鹿潭雪景, 백록담의 눈 경치), 성산출일(城山出日, 성산에서 뜨는 해), 사봉낙조(紗峰落照, 사라봉에서 지는 해), 대수목마(大藪牧馬, 꽃자왈에서 노니는 말), 산포조어(山浦釣魚, 산지포에서 낚시), 산방굴사(山房窟寺, 산방산의 굴 절), 영실기암(靈室奇巖, 영실의 오백장군)이다(이원조, 1841~1843: 44~46쪽; 오문복, 2004: 187~196쪽).

영구상화(瀛邱賞花)

광활유심경부제(廣闊幽深境不齊)	광활했다 유심했다 지경은 고르지 못하지만
취중기절즉산계(就中奇絶卽山溪)	그 가운데 산과 시내는 비할 데 없어라
춘풍수입비선굴(春風隨入飛仙窟)	신선 사는 골짜기에 봄바람 불어 오니
척촉화전해조제(躑躅花前海鳥啼)	철쭉꽃 속에서 바닷새 울음소리.

a10no=kh2_je_a_vsu_55013_001&aa20no=55013_001_0037

http://yoksa.aks.ac.kr/jsp/aa/ImageView.jsp?aa10up=kh2_je_a_vsu_55013_000&a10no=kh2_je_a_vsu_55013_001&aa20no=55013_001_0038&pageid=11a

정방관폭(正房觀瀑)

거해원래집중파(鉅海元來集中波)

큰 바다는 본래 많은 물줄기가 모여 들어도

달관무소역무다(達觀無小亦無多)

달관하여 작다고도 많다고도 아니하네

정방폭포명자토(正房瀑布名茲土)

정방폭포 이 고을을 이름나게 하고 있어

하우굉뢰이족이(夏雨轟雷已足訖)

여름비 내릴 때 우레 소리 충분히 자랑할 만하다.

굴림상과(橘林霜顚)

천굴림중일초당(千橘林中一草堂)

천 그루 굴나무숲 자그마한 초가집 날마다 보는 공사 곱은 점점 익어가네

일생공사점간황(日生公事漸看黃)

추래개개운주곤(秋來箇箇輪舟困)

가을엔 낱날이 따 배에다 가득 싣고 신선고장 향기를 올려 보낸다네.

거작봉래전리향(去作蓬萊殿裏香)

녹담설경(鹿潭雪景)

선유선무지차간(仙有仙無只此間)

이곳에 신선이 있다고도 하고 없다고도 하는데

영주천방사군한(瀛洲天放使君閑)

영주에 온 목사는 한가롭기만

산하백운산상설(山下白雲山上雪)

산 아랫 흰 구름이 산 위엔 흰 눈이

관루지척대잔안(官樓咫尺對孱顏)

관루의 지척에 잔안을 마주했네.

성산출일(城山出日)

천수미망야향란(天水迷忙夜向闌)

하늘과 물 분간 못한 밤이 다해가면 바라보면 좁은 듯 또한 넓은 듯 끊는 듯한 물방울에 빛이 아른거릴 때

안간여착우여관(眼看如窄又如寬)

수경탕적광난정(須更蕩滴光難定)

쾌로운단역옥반(快露雲端亦玉盤)

구름 끝에 붉은 옥쟁반 시원스레 나타나네.

사봉낙조(沙峰落照)

하단록백묘무근(霞丹綠白淼無根)

붉은 노을 흰 물빛 까마득히 끊어없고

일면사라석조현(一面紗羅夕照懸) 사라봉 일면에 저녁노을 걸렸네
 인간만석도도경(人間漫惜滔滔景) 사람이 흘러가는 광경을 애석해
 하지마소
 명일명조일양신(明日明朝一樣新) 내일날 아침이면 새로운 모양 다
 시 불 걸.

대수목마(大藪牧馬)

가축산장본일군(家畜山場本一群) 집에서나 산에서나 한 무리로 기
 르는데
 삼주십소취여운(三州十所聚如雲) 세 고을 열 산장에 구름같이 모였네
 거노거기혼무관(渠驚渠驥渾無管) 둔한 말 빠른 말이 섞였을 땐 잘
 모르지만
 추책가시나세분(箠策加時奈細分) 채찍 들어 때려보면 자세하게 알
 수 있다오

산포조어(山浦釣魚)

포포사반점점비(浦浦槎般點點飛) 포구마다 배들은 점점이 나는 듯
 풍두요철랑성위(風頭凹凸浪成圍) 바람 불면 높고 낮은 파도 울타리
 를 이룬다.
 수연조득어영담(雖然釣得魚盈擔) 그러나 낚은 고기 한 짐 가득할
 때는
 쟁나신중험리귀(爭奈身從險裏歸) 험한 물길 다투며 돌아오는 몸이
 라네.

산방굴사(山房窟寺)

유불중장하석문(有佛中藏呀石門) 어떤 부처를 감춰두고 돌문이 입
 을 벌렸는가
 심심굴택주유혼(深深窟宅晝猶昏) 깊고 깊은 굴속은 낮에도 오히려
 어둡구나
 조지유입유무견(早知愈入愈無見) 들어갈수록 더욱 어두워질 줄 뻔
 히 알면서
 하사암전쾌도준(何似巖顛快倒樽) 어찌하여 바위머리에서 유쾌히 술
 잔을 기울이는고

영실기암(靈室奇巖)

차지영선환석형(此地靈仙幻石形)	이곳 신령스러운 신선이 돌 모양으로 바뀌어서
장시운무쇄암경(長時雲霧鎖巖扃)	오랜 세월 구름과 안개로 바위문을 잠귀 뒀네
산인혁어다경괴(山人嚇語多驚怪)	산사람이 웃으며 놀라면 변괴가 많다함으로
보섭무성중락정(步屨無聲衆樂停)	걸음소리도 가만가만 음악소리도 멈추네

응와(凝窩)가 말하는 영주십경 장소, 즉 들렁귀(방선문), 정방폭포, 감굴원, 백록담, 성산일출봉, 사라봉, 꽃자왈, 산지포, 산방산, 영실 등은 매계(梅溪)의 영주십경 장소와 일치하고 거기에서 보는 경관 역시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매계의 영주십경의 토대가 되고 있다. 오문복은 『영주십경』에서 응와와 매계의 영주십경 장소는 일치하지만 순서와 명칭이 달라서 누가 누구 것을 바꿨는지 알 수 없다고 하였다(오문복, 2004: 6쪽). 하지만 매계의 영주십경은 연배로 보나 정리된 체계로 보나 응와로부터 직간접적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당시의 영주십경 병풍이 전해지지 않아서 <영주십경제화병(瀛洲十景題畫屏)>만으로는 응와가 직접 영주십경을 선정하여 병풍을 만들게 한 후 시문을 썼는지, 아니면 이미 만들어진 영주십경 병풍을 보고 그 화제(畫題)로 시문을 썼는지는 알 길이 없다. 만일 응와가 기존의 영주십경 병풍을 보고 품제했다면, 그가 시를 짓기 이전부터 영주십경이 병풍으로 그려질 만큼 빼어난 경관으로 이미 널리 알려졌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어느 경우이든 응와의 영주십경은 매계의 영주십경의 원초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하지만 그의 시는 후학들에 의해 차운(次韻)이 이뤄지지 않

았다는 한계가 있다.

2. 영주십경에 대한 분석

1) 매계 이한우의 영주십경

오늘날 우리에게 회자되는 영주십경(瀛洲十景), 즉 성산출일(城山出日), 사봉낙조(紗峰落照), 영구춘화(瀛邱春花), 정방하폭(正房夏瀑), 굴림추색(橘林秋色), 녹담만설(鹿潭晚雪), 영실기암(靈室奇巖), 산방굴사(山房窟寺), 산포조어(山浦釣魚), 고수목마(古藪牧馬)는 매계(梅溪) 이한우(李漢雨[震], 1818~1881)가 확정한 것이다. 매계는 10편의 칠언율시로 영주십경을 품제하였다(오문복, 2004: 15~24쪽).

성산출일(城山出日)

산립동두불야성(山立東頭不夜城)	동쪽 머리에 서있는 산이 불야성 같더니
부상효색사음칭(扶桑曉色乍陰晴)	해 뜨는 곳 새벽빛 잠깐에 어둠이 건히네
운홍해상삼간동(雲紅海上三竿動)	바다 위 붉은 구름 늦은 아침까지 움직이고
연취인간구점생(煙翠人間九點生)	사람 사는 마을엔 밥짓는 연기 솟 아 나네
용홀천문개촉안(龍忽天門開燭眼)	하늘 문에는 용이 눈을 부릅뜨고
계선도수송금성(鷄先桃岬送金聲)	복사꽃골짜기엔 쇠소리 같은 닭 우는 소리 들리네
일륜완전승황도(一輪宛轉升黃道)	둥근 해가 높이 솟아오르니
만국건곤앙대명(萬國乾坤仰大明)	은 세상 나라들이 밝음을 우러른다.

사봉낙조(紗峰落照)

수과홍사요벽봉(誰把紅紗繞碧峰)

누가 붉은 비단을 푸른 봉우리에
둘렀는고

사양경각환형용(斜陽頃刻幻形容)

잠깐 해지는 사이에 모습이 확 바
뀌네

신루변태번황학(蜃樓變態翻黃鶴)

신기루는 변하는 자태 황학이 나
르는 듯

경굴부광희적룡(鯨窟浮光戲赤龍)

고래굴에 뜬 빛은 적룡을 희롱하네

역력고촌연외수(歷歷孤村煙外樹)

외진 마을 나무는 연기 너머에 가
리었고

의의원사월변종(依依遠寺月邊鐘)

아득히 먼 절 종소리가 달가에서
들리네

잠정일어동인전(暫停日馭同寅餞)

잠깐 해 수레 멈추고 송별 자리
함께 하여

기아부상효로봉(期我扶桑曉露逢)

부상의 새벽길에 다시 만날 기약
한다.

영구춘화(瀛邱春花)

양안춘풍협백화(兩岸春風挾百花)

쪽 언덕 봄바람에 온갖 꽃들 끼고
있고

화간일경선여사(花間一徑線如斜)

꽃 사이로 오솔길이 한 가닥 비껴
있네

천청사월비홍설(天晴四月飛紅雪)

날씨 좋은 사월에 붉은 꽃눈 휘날
리고

지근삼청영자하(地近三清影紫霞)

선계에 가까운 땅에는 채색 아지
랑이 비치네

영입계성통활화(影入溪聲通活畫)

그림자 잠긴 시냇물 소리는 살아
있는 그림 같고

향생선어격연사(香生仙語隔煙紗)

향기 속 신선의 말소리 비단연기
에 가리네

청군수향상두거(請君須向上頭去)

청하노니 그대들이여 위쪽으로 올
라가면

응유벽도왕모가(應有碧桃王母家)

응당 푸른 복숭아 열린 서왕모 집
있으려니.

정방하폭(正房夏瀑)

급폭뇌성과정방(急瀑雷聲破正房)
염운도사자연광(炎雲倒瀉紫煙光)

설비삼복청산냉(雪飛三伏靑山冷)

홍괘반공백일장(虹掛半空白日長)

직도연천귀대해(直倒連天歸大海)

횡류락지작방당(橫流落地作方塘)

내지보택종성우(乃知普澤終成雨)

진입신룡조화장(盡入神龍造化藏)

거센 폭포 소리 정모깃물 깨뜨리고
타는 구름이 자주 빛 연기를 쏟아
붓네

삼복인데 눈이 날려 청산이 서늘
하고

긴긴 여름날 무지개는 허공에 걸
려있네

하늘에 이어진 물줄기는 한바다로
돌아가고

땅에 떨어진 물은 옆으로 흘러 연
못 을 만들었네

이제는 알겠네, 비 내려 널리 적
셔 주려고

깊숙한 곳 신룡이 조화부리는 것을.

굴림추색(橘林秋色)

황귤가가자작림(黃橘家家自作林)

양주추색동정심(楊州秋色洞庭深)

천두괘월층층옥(千頭掛月層層玉)

만과함상개개금(萬顆含霜箇箇金)

화리선인승학의(畫裏仙人乘鶴意)

주중유객청앵심(酒中遊客聽鶯心)

세간욕치봉후부(世間欲致封侯富)

저사주문도리심(底事朱門桃李尋)

누런 귤 집집마다 저절로 숲을 이
루고

동정호 가의 양주인 듯 가을빛이
깊었네

가지마다 걸린 달은 층층이 옥과
같고

만 덩이 열매는 서리 맞아 금빛이네
그림 속 선인이 학을 탄 느낌이고
술 취한 나그네 피꼬리 소리 듣는
마음이네

세상에 부귀영화 이루려는 사람들아
무엇하러 권세가를 찾아 속된 일
을 하는고.

녹담만설(鹿潭晚雪)

천장만설호징담(天藏晚雪護澄潭)

백옥쟁영벽옥함(白玉崢嶸碧玉涵)

출동조운무영토(出洞朝雲無影吐)

하늘이 늦게까지 눈을 저장해 맑
은 못을 지키니

백옥이 우뚝 솟고 푸른 옥은 잠겼네
아침 구름은 그림자도 없이 골짜
기를 나오고

천림효월유정함(穿林曉月有情含)

새벽달은 숲을 뚫고 다정하게 떠
오르네

한가경면미호분(寒呵鏡面微糊粉)

찬 기운이 물 위에 스치니 분을
바른 듯하고

춘투병간반화람(春透屏間半畫藍)

봄이 병풍마위에 스미니 절반은
쪽빛이네

하처취소선지냉(何處吹簫仙指冷)

어디에서 피리 부느라 손 시린 신
선이

기래쌍록음청감(騎來雙鹿飲清甘)

쌍 사슴 타고 와서 맑은 물을 마
시는가.

영실기암(靈室奇巖)

일실연하오백암(一室煙霞五百巖)

연하 덮힌 한 골짜기 오백 개의
바위들이

기괴괴태총비범(奇形怪態總非凡)

기괴한 형태들이 예사롭지 않다네
스님이 탑에 기대어 운장을 보는

승의보탑간운장(僧依寶塔看雲杖)

듯하고

선읍요대무월삼(仙揖瑤臺舞月衫)

신선이 요대에서 월삼입고 춤을
추네

한객궁하도범두(漢客窮河徒犯斗)

한나라 나그네 황하 발원지 찾다
북두를 범했고

진동망해막정범(秦童望海莫停帆)

진나라 아이들은 바다 보며 배를
멈추지 못 했네

장군혹공신기루(將軍或恐神氣漏)

장군들은 혹시나 하늘의 기밀 썰
까 두려워

묵수영구구자함(墨守靈區口自緘)

신령한 곳 굳게, 지켜 입을 다물고
있네.

산방굴사(山房窟寺)

화공다교착청산(化工多巧斲青山)

조물주가 재주 많아 푸른 산을 깎
아 내어

동설승문운엄관(洞設僧門雲掩關)

굴속에 절을 세우고 구름으로 빗
장 걸었네

연석건곤포상하(鍊石乾坤包上下)

다듬은 돌로 천정 바닥 위 아래를
감싸고

공침세계천중간(孔針世界穿中間)

침으로 뚫은 듯한 굴이 그 가운데
생겨나네.

도현수색천년희(倒懸樹色千年戲) 거꾸로 매달린 나무는 오랜 세월
 흔들거리고
 점적천성만고한(點滴泉聲萬古閑) 방울져 떨어지는 물소리에 만고에
 한가롭네
 한담향소쌍불좌(寒榻香消雙佛坐) 향기 가신 차가운 자리에 부처 두
 분 앉혔는데
 기시병발학비환(幾時瓶鉢鶴飛還) 어느 때나 큰 스님이 학을 타고
 오시려나.

산포조어(山浦釣魚)

양양경사출조어(兩兩輕槎出釣魚) 때배들이 짝지어 고기잡이 나가고
 해천일색경중허(海天一色鏡中虛) 하늘 바다 한 색으로 거울같이 잔
 잔하네
 낙화비서춘화후(落花飛絮春和後) 꽃 지고 버들꽃 날리는 따스한 봄날
 녹수청산우힐초(綠水青山雨歇初) 파란 물 푸른 산 비가 막 개었네
 하의연운수왕반(何意煙雲隨往返) 어찌하여 연기구름은 어울려 가고
 오고
 다정구로망친소(多情鷗鷺忘親疎) 다정한 갈매기는 친소를 잊었는가
 여금차경수고수(如今此景輸高手) 지금 이 경치를 고수에게 맡긴다면
 응작인간미견서(應作人間未見書) 응당 세상에서 못 보던 글 지으려만.

고수목마(古藪牧馬)

운금재래각색구(雲錦裁來各色駒) 구름 비단 마름질한 듯 온갖 색의
 땅아지들
 청규자연우신부(靑虯紫燕又晨鳧) 청규마 자연마 또 신부마일세
 도화세우행행접(桃花細雨行行蝶) 복사꽃 가는 비에 날아가는 나비
 같은
 방초사양갈갈오(芳草斜陽渴渴烏) 향기로운 풀 지는 해에 목마른 오
 추마는
 무습반모개변호(霧濕班毛皆變虎) 안개 젖은 무늬 털은 영락없는 호
 랑이 같고
 풍비황렵각의호(風飛黃鬣各疑狐) 바람에 날리는 누런 갈기는 여우
 인 듯 하여라
 투편육소동서예(投鞭欲掃東西穢) 채찍을 휘둘러 더러운 것들 쓸어
 버리고 싶은데
 수유경륜만복주(誰有經綸滿腹蛛) 거미 배에 가득한 경륜 어느 놈에
 게있을까.

매계(梅溪)는 오늘날의 영주십경의 명칭과 순서를 정립하였다. 그의 영주십경은 구성면에서 일월, 사시, 경치, 풍물 순서로 되어 있는데, 응와의 영주십경보다 짜임새 있고 안정적이다(김세미오, 2006: 67쪽). 그리고 매계를 뒤이어 연파(蓮坡) 김창현(金昌鉉, 1827~1875), 난곡(蘭谷) 김양수(金亮洙, 1828~1887), 을하(栗下) 이용식(李容植, 1833~1895), 해은(海隱) 김희정(金羲正, 1844~1916), 화암(禾菴) 신흥석(愼鴻錫, 1850~1920), 낙천(樂泉) 김희두(金熙斗, 1864~1904), 혁암(革菴) 김형식(金潁植, 1886~1927), 남곡(南谷) 고영하(高永夏, 1888~?), 양암(襄庵) 유담(劉淡, ?~?), 영운(瀛雲) 김계두(金桂斗, ?~?), 조묵와(曹默窩, ?~?), 석호(石湖) 고영흔(高永昕, ?~?) 등이 매계의 영주십경에서 차운(次韻)하거나 화답하였다(오문복, 2004).

영주십경은 이처럼 오랜 동안 학인(學人)들의 입에 오르내림으로써 마침내 제자리를 잡았다. 이는 추사(秋史) 김정희(金正喜, 1786~1856)가 19세기 중엽(1840~1848)에 제주섬에 유배되어 교학활동을 통해 제주학인들에게 영향을 미침으로써 시서(詩書)를 즐길 수 있는 층이 그만큼 두터워졌다는 것을 의미한다(양진진, 2011: 83~133쪽). 다시 말해서 19세기 중엽에 이르러 비로소 제주사회에 제주섬 경관을 음미하고 그 미학적·인문학적 가치를 음미할 수 있는 많은 예인(藝人)과 학인들이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영주십경은 그러한 인문학적 환경을 바탕으로 탄생하였다.

한편 『증보탐라지』에서 영주십경에 ‘용연야범(龍淵夜帆, 용연에서 밤 뱃놀이)’과 ‘서진노성(西鎭老星, 서귀진에서 보는 노인성)’을 더해 ‘영주십이경(瀛洲十二景)’을 이야기한 이후로(담수계, 1945: 63~82쪽) 종종 영주십이경이 얘기되고 있다. 낮 10경에 밤 2경을 더하여 12경을 만든다는 것은 그 나름의 의미가 있다. 그러나 『탐

『라중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용연야범’과 ‘노인진성’을 노래한 시는 영주십경의 다른 것에 비해 그 수가 월등히 부족하다. 영주십경은 매계가 품제하고, 그의 동학이나 제자, 또는 후학들이 거기에 차운하거나 화답하였기에 가능했다. 그러기에 오문복은 영주십경에 ‘서진노성’과 ‘용연야범’을 붙여 제영(題詠) 없이 ‘영주십이경’을 만드는 것은 옥에 티끌을 붙인 것이고, 영주십경에 불만이 있어 이를 바꾸려 한다면, 시를 지어 그 이유를 밝히고 대방가의 화운(和韻)을 얻어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오문복, 2004: 7쪽).

아름다운 경관 12곳이 있다고 해서 영주십이경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그것을 품제를 하고, 동학이나 제자, 또는 후학들이 차운하거나 화답하고, 그를 글씨와 그림으로 남기고 또 다시 많은 이들의 앞에 오르내릴 때 비로소 확정된다. 따라서 제주섬의 빼어난 경관을 영주십이경으로 확장하려면 그것을 음미하고 시서화(詩書畫)로 그려낼 수 있는 예술가와 그것을 시화첩이나 병풍으로 만들어 와유산수를 즐길 수 있는 집단들이 많이 있어야 했다. 그러나 영주십경과는 달리 영주십이경은 거기에 이르지 못했다.

2) 응와와 매계의 영주십경 비교

응와(凝窩)와 매계(梅溪)의 영주십경은 소상팔경처럼 특정 장소에서 볼 수 있는 특정한 장면들이다. 다시 말해서 영주십경은 일출봉, 사라봉, 방선문, 정모시, 감골원, 백록담, 영실, 산방산, 산지포, 꽃자왈 등과 같은 장소가 아니라, 그 곳의 해돋이, 낙조, 꽃, 폭포, 색조, 눈, 기암, 굴사, 고기잡이, 말기르기 등의 특정 장면을 의미한다.

〈표2〉 응와와 매계의 영주십경 비교(1)

응와(凝窩) 영주십경	매계(梅溪) 영주십경
영구상화(瀛邱賞花)	성산출일(城山出日)
정방관폭(正房觀瀑)	사봉낙조(紗峰落照)
굴림상과(橋林霜顚)	영구춘화(瀛邱春花)
녹담설경(鹿潭雪景)	정방하폭(正房夏瀑)
성산출일(城山出日)	굴림추색(橋林秋色)
사봉낙조(沙峰落照)	녹담만설(鹿潭晚雪)
대수목마(大藪牧馬)	영실기암(靈室奇巖)
산포조어(山浦釣魚)	산방굴사(山房窟寺)
산방굴사(山房窟寺)	산포조어(山浦釣魚)
영실기암(靈室奇巖)	고수목마(古藪牧馬)

매계(梅溪)와 응와(凝窩)의 영주십경은 그 배열순서가 달라도 영주십경의 장소는 거의 일치한다. 다만 두 경우 모두 굴림상과(橋林霜顚)/굴림추색(橋林秋色)과 대수목마(大藪牧馬)/고수목마(古藪牧馬)의 장소가 다소 불분명해서 당시의 굴림(橋林)과 대수(大藪) 또는 고수(古藪)의 위치를 규정짓기 어렵다. 오문복은 당시의 행정적으로 목(牧)과 현(縣)에서 인적 물적 자원을 3:1로 배분하는 관례를 감안하여 영주십경 위치가 제주목 6곳, 정의현 2곳, 대정현 2곳으로 배치했을 것으로 추측한다.⁷⁾ 그리 본다면 당시의 굴림추색과 고수목마의 장소는 제주목일 가능성이 높다.

지금이야 감귤원이 산북보다는 산남에 더 많지만, 본래는 제주목

7) 오문복 선생은 영주팔경이 아니고 영주십경으로 된 데는 조선시대에 인적 물적 자원을 배분할 때는 제주목 6, 정의현 2, 대정현 2의 비율로 나누는 관례가 있었고, 그 관례에 따라 10경이 되었던 것으로 추측한다. 영주십경을 선정하는 경우에도 각각 제주목에 영구춘화, 굴림추색, 녹담만설, 고수목마, 산포조어, 사봉낙조 등 6개소, 정의현에 성산출일, 정방하폭 2개소, 대정현에 영실기암, 산방굴사 2개소를 배정했다는 것이다(2012. 5. 1. 면담에서).

에서 본격적으로 조성되기 시작하였다. 그렇다면 19세기 중엽 응와와 매계가 굴림상과와 굴림추색을 지정할 때 당시 굴림의 위치는 어디일까. 예로부터 기후가 따뜻한 제주는 귤과 유자의 고장으로 유명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朝廷)에서도 중종21년(1526) 이수동(李壽童) 목사는 진상할 귤을 마련하기 위해 별방, 수산, 서귀, 동해, 명월 등 5개 방호소에 과원(果園)을 설치하였고, 그 후 제주목에 22개소, 정의현에 7개소, 대정현에 6개소로 증설되었으며, 숙종(1674~1720) 당시에는 모두 42곳에 이르렀다. 이 무렵 제주읍 성에는 동·서·남·북·중 과원 5개와 별과원 등 6개의 과원이 있었는데, 병와(甁窩) 이형상의 『탐라순력도』의 ‘굴림풍악(橋林風樂)’에 나오는 과원 역시 이들 중 하나이다. 가을철 귤과 유자가 익어갈 때 성에 올라 보면 사방이 온통 금빛 세계를 이룬다(제주문화원, 2005: 162쪽). 그리 본다면 응와와 매계가 영주십경을 선정할 당시 굴림추색의 장소는 제주읍성, 즉 제주시 오현단 주변의 감귤과원을 무대로 한 것으로 추측된다. 물론 오늘날에는 산남이 감귤 주산지임을 감안한다면 굴림추색의 장소는 산남 쪽이 더 어울릴 것이다.

그리고 대수목마(大藪牧馬) 또는 고수목마(古藪牧馬)의 정확한 위치를 정하기는 쉽지 않다. 『탐라순력도』의 <산장구마(山場駒馬)>을 고려한다면 제주를 대표하는 목마장은 대록산과 소록산이 있는 녹산장(鹿山場) 근처로 추측된다. 하지만 영주십경 위치가 제주목 6개소, 정의현 2개소, 대정현 2개소라는 배분에 따라 정해졌다는 의견에 따르면, 당시 목마장은 옛날 제주읍 일도리 지경에 있었던 고마장(古馬場)일 가능성이 높다(제주문화원, 2005: 165쪽). 고마장은 육지로 보낼 말들과 사객(使客)과 관원(官員)들이 이용할 말을 기르던 제주시 사라봉, 건입동, 일도동(현재 제주항과 사라봉공원, 한마음병원 동북쪽 일대)에 위치한 들판의 목장과 마사(馬舍)를 말

한다(제주도, 2002: 108~109쪽). 그래서 오늘날 이 부근의 길을 고마로(古馬路)라고 칭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말을 키우는 모습을 보기 위해 516도로 제주마방목지를 찾고 있다.

매계의 영주십경은 '봄', '여름' '가을' 등 시간적 요소를 보다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응와와 차이가 있다. 이를테면 응와의 경우는 “정방폭포에서 물 떨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 좋지만, 매계는 “(여러 계절 중에서도) 특히 여름에 정방폭포에서 물 떨어지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그리고 응와의 경우 “백록담에 눈이 쌓인 모습”이 좋지만, 매계는 “(해안지대에는 봄이 왔지만) 백록담에 늦게까지 눈이 쌓인 모습”이 보기에 좋다는 것이다.

〈표3〉 응와와 매계의 영주십경 비교(2)

응와(凝窩)	매계(梅溪)	차 이
영구상화(瀛邱賞花)	영구춘화(瀛邱春花)	賞花 -> 春花
정방관폭(正房觀瀑)	정방하폭(正房夏瀑)	觀瀑 -> 夏瀑
굴림상과(橘林霜顛)	굴림추색(橘林秋色)	霜顛 -> 秋色
녹담설경(鹿潭雪景)	녹담만설(鹿潭晚雪)	雪景 -> 晚雪

이러한 차이는 육지에서 일시적으로 부임한 목사(牧使)와 제주지역 토박이 선비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오래 살아보지 않고는 특정 지역에서 언제 그 경관이 '가장' 아름다운지 알 수 없다. 다시 말해서 특정 경관에 시간적 요소를 집어넣으려면 한 두 해 그 지역에 살아서는 알 수 없고, 오랫동안 그 경관을 본 다음에야 가능하다. 이를테면 정방폭포에서 물 떨어지는 것이 계절에 관계없이 비경(秘境)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여름에 보는 모습이 가장 아름답고, 백록담에 눈 쌓인 모습이 절경(絶景)이지만 늦게까

지 눈이 쌓여있는 모습이 더욱 아름답다는 것은 그 지역에 오랫동안 머물거나 살았던 자만이 알 수 있다.

영주십경 가운데 영실기암, 산방굴사, 고수목마, 산포조어는 시기가 특정되어 있지 않다. 영실기암과 산방굴사의 경우는 봄에는 꽃, 여름에는 녹음, 가을에는 단풍, 겨울에는 눈 덕분에 계절에 관계없이 영주십경으로서 손색이 없고, 기암과 동굴이 시간이 흐르고 달라질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고수목마와 산포조어의 경우는 특정 시기에만 볼 수 있는 장면은 아니기에 굳이 시기를 제시하지 않았을 것이다.

IV. 영주십경 속의 제주다움

우리나라 최남단에 위치한 화산섬 제주의 자연과 문화는 독특한 경관을 나타내며, 영주십경은 제주다움을 나타내는 경관들이다. 영주십경은 화산섬이라는 독특한 지형학적 특성과 온대와 아열대의 전이지대에 위치한 기후적 특성, 섬이라는 해양이라는 특성, 몽골 강점 이후 군마공급지와 신선의 고장이라는 역사문화적 배경 속에 탄생했다.

1. 화산지형

제주가 육지와 다른 경관을 나타내는 가장 큰 이유는 화산섬이라는 데 있다. 남한 최고봉인 한라산, 360여개 오름들, 신들의 정원으로 알려진 계곡과 폭포, 생명의 숲인 곳자왈, 현무암 해안 등은 모두 화산활동의 산물이다. 그러다 보니 영주십경 장소 가운데 8곳

이 화산지형이다. 이를테면 성산출일(城山出日), 사봉낙조(紗峰落照), 영구춘화(瀛邱春花), 정방하폭(正房夏瀑), 녹담만설(鹿潭晚雪), 영실기암(靈室奇巖), 산방굴사(山房窟寺), 고수목마(古數牧馬)의 무대인 성산일출봉, 사라봉, 방선문, 정방폭포, 한라산(백록담), 영실, 산방산, 꽃자왈 등이다.

남한 최고봉인 한라산은 백두산과 함께 민족의 영산이면서 금강산, 지리산과 함께 삼신산의 하나로 불린다. 특히 한라산 백록담은 백두산 천지와 함께 우리 민족의 영토를 아우르는 곳이 되고 있다. 제주 사람들에게 어머니 같은 산이요 한라산은 할로산신[한라산신]이 거주하는 본향이다. 그리고 섬 중앙에 솟아 있는 해발 1950미터의 한라산은 제주섬 어디에서나 볼 수 있어서 제주사람에게는 지리적 좌표의 기준이 되는 랜드마크(landmark)이고, 바다를 오가는 해양인에게는 위치를 가늠할 수 있는 오션마크(ocean mark)가 되고 있다.

백록담 분화구의 서쪽 절반은 점성이 매우 높은 조면암으로 돔(dome) 형태를 하고 있고, 동쪽 절반은 점성인 낮은 조면현무암으로 이루어져 지형이 완만하다. 또한 분화구 남쪽은 조면암 돔의 붕괴로 깎아지른 듯한 절벽을 하고 있다. 녹담만설(鹿潭晚雪)의 무대인 한라산 정상에는 옛날 신선들이 백록을 타고 놀았다는 백록담이라는 분화구가 있으며, 정상부는 보는 각도에 따라 매우 다른 모습을 한다. 한라산은 보는 지점뿐만 아니라 시기에 따라 달리 보이고, 날씨에 따라 변화무쌍한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에 어느 특정 지점과 시기를 정해서 한라산의 대표적인 모습이라 하기는 어렵다. 그러다 보니 제주섬 사람들은 자기 고향 마을에서 보는 한라산이 가장 아름답다고 주장을 펴면서 논쟁을 하기도 한다.

제주섬에는 약 360여 개 오름이 있다. 단일면적에 이렇게 많은 화산체가 있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유일하다. 그래서 제주섬을 '오름

의 왕국'이라고 한다. 각기 위치와 모양을 달리하는 수많은 오름들은 그 자체가 심미적 대상이고, 각기 다른 주변경관과 원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최고의 전망대이며, 제주섬 전체에서 이어지는 부드러운 오름의 능선들은 제주다움을 나타내는 전형적인 경관이다. 영주십경에 등장하는 성산일출봉, 사라봉, 영실, 산방산 등은 그 형성 원인이 제각기 다르고 그 모습도 다른 오름이다.

영주십경 가운데 제일경의 무대인 성산일출봉은 상승하는 마그마가 물과 작용하여 강한 폭발을 일으켜 형성된 182미터의 수성화산으로, 산체가 높고 분화구의 경사가 높은 응회구(凝灰丘, tuff cone)이다. 전 세계적으로 수성화산들은 많으나 성산일출봉과 같은 응회구의 지형을 잘 간직하고 해안절벽을 따라 다양한 내부구조를 보여주는 응회구는 없다. 분화구 경사면 절벽이 마치 거대한 성(城)처럼 생겨서 성산(城山)이라 불렀고, 수평선 너머로 떠오르는 해를 보기에 적격이어서 일출봉으로 불리고 있다.

대부분의 제주 오름은 화산활동 과정에서 분출된 물질들로⁸⁾ 이루어진 분석구(噴石丘, scoria cone)이다. 사라봉은 바다와 인접한 148미터의 분석구로 제주시내에서 가까워 시민들의 즐겨찾는 오름이다. 사라봉은 남쪽의 한라산, 서쪽의 제주시내와 제주항을 조망하기에 좋으며, 특히 저녁에 해지는 모습이 절경을 이뤄서 사봉나조의 무대가 되고 있다.

영실기암의 무대인 영실(靈室)은 일명 오백장군오름이라고도 하며, 예로부터 신령스런 곳이라 하여 한라산, 물장오리와 더불어 삼대 성소(聖所)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 둘레 3300여 미터의 분화구 형태의 계곡으로 서쪽 벽에는 1200여개의 바위기둥이 병풍처럼 둘

8) 화산활동에서 분출된 물질을 제주어로는 '송이', 지질학용어로는 분석(噴石) 스크리아(scoria)이라고 한다.

러쳐 있고, 동쪽에는 500여 개가 넘는 돌기둥이 마치 장군과 수행자처럼 서 있다. 옛 문헌에는 영곡(靈谷), 영실(瀛室), 천불봉(千佛峰)이란 표기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세간에서는 오백장군(五百將軍), 오백나한(五百羅漢)이라고도 한다. 임제, 김상헌, 김치, 김성구 등 16~17세기의 옛 선비들도 영실의 경승을 찬탄하고 있다(김중철, 2003(1): 299쪽).

산방굴사의 무대인 산방산은 점성이 높은 끈적끈적한 용암이 분출하면서 화구주변에서 굳어져 마치 종 내지는 철모를 얹어놓은 돔 형태 오름(lava dome)이다. 산방산은 비고 345미터의 거대한 용암덩어리로 남쪽 절벽에는 다양한 모양과 크기의 풍화혈과 애추가 발달되어 있다. 해발 150쯤에 길이 약 10미터 너비와 높이가 약 5미터인 산방굴이라는 해식동굴이 바다를 향해 나 있는데, 이곳에 고려말 혜일(慧日)이 창건한 굴사(窟寺)가 있다. 산방산은 생성 전설, 산방덕 전설, 용머리 전설, 광정당 이무기 전설, 금장지(禁葬地) 이야기, 혜일·방철 스님 이야기 등 전설의 산이라 할 만하고, 예로부터 그 기관(奇觀)과 빼어난 조망으로 시문·화폭에 많이 담겨져 왔다(김중철, 2003(2): 138쪽).

이 외에도 영구춘화의 무대인 방선문 계곡, 정방하폭의 정방폭포, 고수목마의 무대인 꽃자왈 등도 화산지형의 산물들이다.

2. 온화한 기후

제주섬은 기후적으로 온대와 아열대의 전이지대에 위치하는데 남한 최고봉 한라산이 있어서 제주섬은 육지와는 다른 경관을 연출한다. 지역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해발 200미터 미만의 해안지대에는 일평균기온이 5℃미만으로 내려가는 일이 거의 없다. 자연계절로서

겨울은 거의 없고, 봄, 여름, 가을만이 있어서 사계절이 아니고 삼계절인 셈이다.9)

그렇다고 제주섬에 겨울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해발 1700미터 이상인 고산지대에는 대략 11월 초부터 4월말까지 일평균기온이 5℃ 미만으로 한라산 정상부인 백록담은 일 년 중 6개월이 겨울이다. 고산지대에는 일평균기온이 20℃이상 되는 자연계절로서 여름이 없어서 봄, 가을, 겨울 삼계절만 있는 셈이다. 따라서 제주섬 전체를 볼 때는 해안지대와 한라산 고산지대의 계절은 다르게 진행된다. 해안지대는 봄인데도 고산지대는 여전히 겨울이고, 해안지대가 여름일 때는 해안지대는 봄과 가을이고, 해안지대가 가을일 때는 고산지대는 겨울이 되는 것이다. 제주섬에는 늘 서로 다른 두 계절이 상존하는 것이다.

〈표3〉 제주의 24절기 일평균기온(1971~2000)10)

계절	24절기	양력(+1)	일평균기온(℃)	
			해안지대	한라산
봄	입 춘	2월 4일	5.3	-4.7
	우 수	2월 19일	6.3	-5.7
	경 칩	3월 5일	8.2	-1.8
	춘 분	3월 21일	9.6	-0.4
	청 명	4월 5일	12.5	2.5
	곡 우	4월 20일	14.4	4.4
여름	입 하	5월 6일	17.1	7.1
	소 만	5월 21일	18.1	8.1
	망 중	6월 6일	20.3	10.3

- 9) 기후학에 자연계절은 일평균기온이 5℃미만을 겨울, 5~20℃를 봄, 가을, 20℃이상을 여름이라고 한다.
- 10) 여기서 해안지대 기온은 2001년 기상청에서 발간한 한국기후표(1971~2000)에서 발표된 제주기온이고, 한라산 기온은 그것을 토대로 고도 100미터 높아짐에 따라 0.6℃가 내려가는 것을 감안하여 1700미터 이상 고산지대 기온을 대략 추정해 본 것이다.

	하 지	6월 21일	21.4	11.4
	소 서	7월 7일	24.6	14.6
	대 서	7월 23일	26.8	16.8
가을	입 추	8월 8일	27.3	17.3
	처 서	8월 23일	25.7	15.7
	백 로	9월 8일	23.8	13.8
	추 분	9월 23일	21.5	11.5
	한 로	10월 8일	19.0	9.0
	상 강	10월 23일	16.5	6.5
	겨울	입 동	11월 7일	14.6
소 설		11월 22일	11.3	1.3
대 설		12월 7일	8.9	-1.1
동 지		12월 22일	7.3	-2.7
소 한		1월 6일	6.8	-3.2
대 한		1월 20일	5.1	-4.9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다른 지역과 달리 제주섬 해안지대에서는 12월~2월에도 노지(露地)에서 푸른 채소를 볼 수 있고, 예로부터 아열대과일인 감귤이 재배되었다. 늦가을에 눈 쌓인 한라산을 배경으로 황금빛으로 익어가는 모습은 제주다움을 상징하는 경관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굴림추색이 영주십경의 하나로 들어가게 된 것이다. 그리고 해안지역에는 벚꽃과 유채꽃과 핀 완연한 봄에도 한라산 정상부에는 늦게까지 눈이 녹지 않는다.

매계(梅溪)의 영주십경은 그러한 제주섬의 기후적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다. 매계는 영주십경에서 봄, 여름, 가을은 언급하면서도 겨울은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영구춘화(瀛邱春花), 정방하폭(正房夏瀑), 굴림추색(楡林秋色)을 품제한 후 녹담동설(鹿潭冬雪)이라 하지 않고 녹담만설(鹿潭晚雪)이라고 하였다. 이는 제주사람들이 주로 거주하는 제주섬 해안지대의 자연계절이 삼계절(봄, 여름, 가을)이라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녹담만설은 제주섬이 아열대와 온대의 전이지대이고 남한 최고봉인 한라산이 섬 중앙에 솟아 있다

는 제주의 자연조건을 가장 잘 반영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춘하추동 사계절을 감안하고, 영구춘화, 정방하폭, 굴림추색, 녹담만설 순의 계절 배열을 감안한다면, 녹담만설(鹿潭晩雪)은 시기적으로 겨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제주섬의 기후적 특성을 감안한다면 한라산 정상부에 늦게까지 눈이 쌓여있는 모습을 의미하는 녹담만설은 시기적으로 한겨울에 눈으로 가득 덮여있는(滿雪) 한라산 모습이 아니라, 벚꽃, 유채꽃, 보리밭 등을 배경으로 3월말에서 4월초까지 눈 쌓인(晩雪) 한라산 모습이다. 실제로 제주섬에서는 그 시기에 해안지대에는 유채꽃과 벚꽃이 만발했는데 한라산 정상부근에는 하얗게 눈 덮인 모습을 얼마든지 볼 수 있다. 녹담만설은 제주섬의 해안지대와 고산지대 계절이 다르게 진행되는 제주의 기후적 특성을 잘 드러낸 영주십경이다.

3. 역사 문화적 배경

문자적으로만 본다면 신선(神仙)의 고장이라는 영주(瀛洲)의 제일경은 영구춘화(瀛邱春花)이라야 한다. 신선들이 사는 영주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신선들이 노니는 곳을 찾는 일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응와(凝窩) 이원조(李源祚, 1792~1871)가 영구상화(瀛邱賞花)를 영주십경 가운데 제일경으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 영구춘화의 배경이 되는 방선문 계곡에는 신선의 노니는 곳을 암시하는 등영구(登瀛邱), 방선문(訪仙門), 환선대(喚仙臺), 우선대(遇仙臺) 등 마애명들이 있다. 방선문이 위치한 이곳을 예로부터 '들렁귀'라 하였고, 한자어로는 '등영구(登瀛邱)라 하였다. 들렁귀는 커다란 돌로 이뤄진 무지개 모양의 바위가 드리워져 있는 계곡으로 예전에는 양쪽 가장 자리에 진달래와 철쭉이 완연하게 숲을 이루어

꽃 필 무렵에는 온통 붉은 빛이 감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신선의 세계로 들어가[登瀛邱] 신선을 찾고[訪仙] 불러서[喚仙] 만나는[遇仙] 곳으로 생각하였다. 수많은 관리와 시인묵객들이 찾아서 마애명을 남겼고 현재에도 230여개의 제명(題名)과 10수의 제영(題詠)이 있다(현행복, 2004: 12쪽).¹¹⁾ 봄을 맞아 풍류객들이 찾아가면 번거로운 세상에서 훌쩍 벗어났다는 생각을 들게 하는 방선문 계곡의 절경은 조선조 사대부들에게 영구춘화를 영주십경의 제일경으로 여기도록 하였던 것이다.

산포조어(山浦釣魚)와 고수목마(古藪牧馬)는 바다와 육지를 무대로 해양문화와 목축문화가 어우러져 살아가는 제주인의 생활상을 반영하는 경관이다. 하지만 두 경관 중 그 순서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하는 데는 약간의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오문복은 통상적으로 육수(陸水)라 하지 않고 수륙(水陸)이라 하기 때문에 산포조어를 앞에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오문복, 2004:6쪽). 하지만 우리가 해산(海山)이라 하지 않고 산해(山海)라 하기 때문에 고수목마를 앞에 두어야 한다는 주장도 가능하다. 다만 영주십경을 품제한 매계(梅溪)의 뜻을 존중한다면, 산포조어, 고수목마 순이 바람직하다.

산포조어(山浦釣魚)는 산저포(山底浦), 즉 건입포(建入浦)에서 고기잡는 모습을 이르는 것이다. 제주섬이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해양문화의 한 모습을 영주십경으로 넣는 것은 당연하다. 응와와 매계, 그리고 그 뒤를 잇는 후학들은 모두 작은 고깃배를 타고 고기잡는 모습을 산포조어에서 노래하고 있다. 이를테면 오늘날 서예가들이 즐겨 쓰는 작자 미상의 시 “산포조어(山浦釣魚)”에서 “물고

11) 이곳을 찾아 제액(題額)을 남긴 인사들 가운데 제주관리로는 목사(牧使) 24인, 판관(判官) 11인, 현감(縣監) 4인 등이며 3개의 회원단체와 참판(參判) 최익현등 다수의 유배인의 기록이 남아 있다.

기 살찌는 따스한 봄날 도롱이 신고 가는 외로운 배 한 척(水暖春晴魚正肥 孤舟一葉載蓑衣)"가 한 예이다. 그러나 작은 배를 타고 고기잡는 모습은 강촌이나 어촌에서는 어디서나 볼 수 있고 동양의 시제와 화제가 되었다. 따라서 산포조어는 제주다움을 나타내는 해양문화로는 한계가 있다. 만일 제주다움을 나타내는 해양문화, 즉 다른 곳에서는 보기 드문 해양의 경관을 찾는다면 역시 '해녀(잠네)들이 물질하는 모습'일 것이다. 그러나 영주십경에서 '해녀들의 물질 모습'을 취하지 못한 것은 아쉬움이 크다. 이는 영주십경 자체가 조선시대 사대부 내지는 양반문화의 산물이라는 뜻으로 들릴 수밖에 없다.

제주섬은 "말을 낳으면 제주도로 보내라"는 속담이 생길 정도로 말의 고장으로 유명하다. 따라서 고수목마(古藪牧馬)가 영주십경으로 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 몽골이 군마(軍馬)를 공급하기 위해 고려 충렬왕 2년(1276)에 성산읍 수산리(水山坪)에 탐라목장을 설치한 이후 조선 세종 11년(1429)부터 성종 대에 걸쳐 중산간 들에 10소장을 설치되었고, 효종 9년(1658)에는 제주목의 1소장(조천읍)과 정의현 9, 10소장(남원읍, 표선면) 사이의 해발 400미터 이상 초지대에 산마장(山馬場: 정조 때 침장, 상장, 녹산장으로 분리됨)이 설치되었다(제주도, 2002: 66~100쪽). 하여 제주섬은 고종 32년(1895) 공마제(貢馬制)가 폐지될 때까지 여선(麗鮮) 양조를 합쳐 600여년 동안 군마공급지가 되었다.

중산간 초원이 조선시대 국마장이었을 때, '상жат', '중жат' '하жат'을 구획지어 잣성을 들렀다. 하жат성(해발 150~250미터 정도)은 해안지대의 농경지와 중산간 방목지와와 경계부분에, 상жат성(450~650미터 정도)은 중산간 방목지와 산간지대 산림지와 경계부분에 위치하고 있다(강만익, 2009: 241쪽). 따라서 예전에 상жат성 위쪽은

대체로 울창한 숲지대, 즉 꽃[藪]이었다. 제주도에서는 산과 들에 기르는 마소를 두고 '꽃물' '꽃쉐'라고 했다. 꽃물과 꽃쉐를 키우는 것은 제주도 전역에서 보편적으로 이뤄졌다. 특히 중산간 마을에서는 '꽃물'과 '꽃쉐'를 많이 길렀는데 그 방법이 조금씩 달랐다.

이처럼 영주십경은 제주섬의 자연경관만을 취한 것이 아니고 신선의 고장[瀛洲]에서 주민들이 먹고 살아가는 모습까지 담아내려 한 역사문화적 배경 속에서 탄생한 것이다.

VI. 맺는 말

우리나라 최남단에 위치한 제주섬의 자연경관은 유네스코 자연과 학 3개 분야,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등으로 등재되면서 그 탁월성을 인정받고 있다. 제주섬은 지리, 지질, 지형, 기후 등 자연환경의 요인 때문에 우리나라의 다른 지역과 문화와 경관도 다르다. 그리고 많은 이들은 제주다운 것을 보고 느끼고 체험하기 위해서 제주섬을 찾는다. 하지만 제주경관에 대한 인문학적 탐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옛 선인들은 영주십경(瀛洲十景)을 통해 제주경관에 인문학적 가치를 부여했다. 오늘날 회자되는 영주십경, 즉 성산출일(城山出日), 사봉낙조(紗峰落照), 영구춘화(瀛邱春花), 정방하폭(正房夏瀑), 굴림추색(橋林秋色), 녹담만설(鹿潭晚雪), 영실기암(靈室奇巖), 산방굴사(山房窟寺), 산포조어(山浦釣魚), 고수목마(古藪牧馬)는 매계(梅溪) 이한우(李漢雨, 1818~1881)가 확정한 것이다. 영주십경은 중국의 소상팔경(瀟湘八景)과 우리나라의 관동팔경(關東八景) 등과 같은 경관문화에 간접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매계 이전

에 야계(冶溪) 이익태(李益泰, 1633~1704)의 탐라십경(耽羅十景), 병와(瓶窩) 이형상(李衡祥, 1653~1733)의 제주팔경(濟州八景) 등과 같은 제주섬의 경관에 대한 관심이 커지기 시작했고, 응와(凝窩) 이원조(李源祚, 1792~1871)가 제주목사 부임 당시(1841~1843)에 성산일출봉, 사라봉, 영구(들렁귀), 정방폭포, 굴림, 백록담, 영실, 산방산, 산지포, 꽃자왈 등을 영주십경의 장소로 선정했다¹²⁾고 볼 수 있다. 영주십경은 그를 바탕으로 추사 김정희(金正喜, 1786~1856)가 대정에 유배되면서(1840~1848) 양성된 제자들, 즉 매계를 비롯한 시서화를 즐길 수 있는 학인들이 다수 생겨나면 이뤄진 제주섬의 경관문화라 할 수 있다.

제주다움을 나타내는 경관들로 이뤄진 매계의 영주십경은 화산섬이라는 독특한 지형학적 특성(성산출일, 사봉낙조, 영구춘화, 정방하폭, 영실기암, 녹담만설, 고수목마)과 온대와 아열대의 전이지대에 위치한 기후적 특성(굴림추색, 녹담만설, 해양지역이라는 특성(산포조어), 몽골강점 이후 군마공급지로서 목축(고수목마)와 신선의 고장이라는 역사문화적 배경(영구춘화, 녹담만설) 속에 탄생했다. 영주십경은 아침·저녁, 봄·여름·가을·겨울, 기암·동굴, 산·바다 등 시공간적으로 체계적인데다, 특정 장소와 더불어 특정 시점에서 보게 되는 장면을 십경으로 꼽았다는 데서 다른 팔경이나 십경과 차별성을 보인다. 다만 (작은 배를 타고) 고기잡는 모습을 나타내는 산포조어의 경우는 다른 지역에서도 볼 수 있는 경관이어서 해녀들이 물질하는 풍경을 영주십경 속에 넣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12) 응와와 매계의 영주십경은 장소는 일치하나 그 순서나 구체적 경관 자체는 다소 차이가 있다. 매계의 것이 응와의 것보다 논리적 구조나 체계의 완결성에서 더 높고, 매계가 응와보다 연배가 아래인 것으로 보아 매계의 영주십경이 응와의 것보다 나중이라고 보는 것이다.

지금까지 영주십경은 경관지 중심으로 관광하는 점(點) 관광에 큰 기여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올레길이나 유배길을 걷는 것과 같은 선(線) 관광에 기여를 해야 하고, 더 나아가 특정한 곳에 머물면서 그곳의 생태, 문화, 역사 등을 체험하는 면(面) 관광 내지는 입체(立體) 관광으로 나아가는 데 기여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동안 단절되고 독립된 것으로 여기던 영주십경의 경관들을 서로 연계하고, 스토리텔링적 요소를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영주십경에는 많은 서사적 요소가 있고, 그것들을 예술적으로 승화시킨 시, 서예, 그림, 음악 등의 작품들도 더러 있다. 하지만 중국의 소상팔경과 우리나라 관동팔경에 비한다면 턱없이 모자라다. 따라서 영주십경을 세계인들에게 보다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영주십경과 관련된 더 많은 예술작품들이 나와야 하고, 영주십경 자체뿐만 아니라 영주십경을 대상으로 한 예술작품들에 대한 인문학적 구명(究明)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고영자, 2009, 「제주 '명소'의 탐생과 '성소'의 수난」, 『민족미학』 제8집, (사)민족미학연구소.

국립제주박물관, 2005, 『조선중기 역사의 진실 이익태 목사가 남긴 기록』, 국립제주박물관.

국립제주박물관, 2013, 『한라산』, 국립제주박물관.

기상청, 2002, 『한국기후표(1971~2000)』, 기상청.

김상성 외, 1999, 『關東十景』, 김남기 번역 및 해제, 서울대학교규장각.

김새미오, 2006, 「梅溪 李漢雨의 시문학 일고」, 『영주어문』제11집, 영주어문학회.

김종철, 2003, 『오름나그네(1), (2), (3)』, 높은오름.

담수계, 1945, 『증보탐라지(2004)』, 제주문화원.

李荇 외, 1530, 『新增東國輿地勝覽』

서재철, 2005, 『화산섬의 바람자리 오름』, 일진사.

양진건, 2011, 『제주유배길에서 추사를 만나다』, 푸른역사.

오문복, 2004, 『영주십경 시집』, 제주문화.

윤용택·김치완, 2012, 「글로벌시대의 문화콘텐츠로서 영주십경에 대한 연구」《제주대학교 개교60주년기념 연구소 통합학술대회 발표자료집》, 제주대학교.

李源祚, 1989, 『耽羅錄』 영인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李元鎭, 2002, 『耽羅誌』, 김찬흡 외 역주, 푸른역사.

李益泰, 2010, 『知瀛錄』, 김익수 역, 제주문화원.

李增, 2001, 『南槎日錄』, 김익수 역, 제주문화원.

李衡祥, 1994, 『耽羅巡歷圖』, 제주시.

李衡祥, 2009, 『남환박물』, 이상규·오창명 역주, 푸른역사.

전경원 2010, 『소상팔경』, 건국대학교출판부.

제주도, 1998, 『제주의 오름영주』, 제주도.

제주도, 2002, 『제주도 제주마』, 제주도.

濟州大學校博物館, 2003, 『博物館圖錄』(書畫類).

濟州文化院, 2005, 『譯註 增補耽羅誌』, 제주문화원

조상현, 2006, 『18~19C 그림속의 관동팔경』, 한서대학교출판부.

현행복, 2004, 『방선문』, 각.

인터넷사이트

왕실도서관 장서각 디지털 아카이브

http://yoksa.aks.ac.kr/jsp/aa/VolView.jsp?mode=&page=4&fcs=&fcsd=&cf=&cd=&gb=&aa10up=kh2_je_a_vsu_55013_000&aa10no=kh2_je_a_vsu_55013_001&aa15no=001&aa20no=55013_001_0038&gnd1=&gnd2=&keywords=&rowcount=10

http://yoksa.aks.ac.kr/jsp/aa/ImageView.jsp?aa10up=kh2_je_a_vsu_55013_000&aa10no=kh2_je_a_vsu_55013_001&aa20no=55013_001_0037

http://yoksa.aks.ac.kr/jsp/aa/ImageView.jsp?aa10up=kh2_je_a_vsu_55013_000&aa10no=kh2_je_a_vsu_55013_001&aa20no=55013_001_0038&pageid=11a

Abstract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Jeju-ness of
Yeongjusipkyeong in Jeju Island

Yoon, Yong-Taek*

From ancient times East Asians have believed Taoist hermits live in 'Yeongju(瀛州)' have been longing for going there. Yeongju is the Jeju island's nickname. Yeongjusipkyeong(瀛州十景) means the 10 historic famous sceneries in Jeju Island. Yeongjusipkyeong was selected by Jeju local scholar Maekye Yi Han-u(梅溪 李漢雨, 1818~1881). And it was created because of the unique topographical characteristics, the warm temperate climatic characteristics, the maritime cultural characteristics, and the place where military horse breeding and Taoist hermits live.

Sosangpalkyeong(the 8 historic famous sceneries of Hsiao and Hsiang in China) Kwandongpalkyeong(the 8 historic famous sceneries of Eastern Korea) have been looked at as the models for our scenery culture. This paper examined whether they had any effect on the Yeongjusipkyeong. There were Tamlasipkyeong by Yakyeo Yi Ik-tae(治溪 李益泰, 1633~1704) and Yeongjusipkyeong by Eungwa Yi Won-jo(凝窩 李源祚, 1792~1871) before the Yeongjusipkyeong by Maekye Yi

* Professor, Department of Philosophy, Jeju National University

Han-u in Jeju Island. However, the latter is much better organized and reveals the identity of Jeju island than the formers.

Yeongjusipkyeong contains the beautiful natural scenes, and the humanistic narrative elements, and there are poems, calligraphic works, paintings, music works, etc. on it. But they are far smaller numbers than on the artworks of Sosangpalkyeong or Kwandongpalkyeong. Therefore, more artworks for Yeongjusipkyeong should be produced. And about the humanities research is needed.

Key-words : Jeju Island, Youngju, Yeongjusipkyeong, Tamlasipkyeong, Sosangpalkyeong, Kwandongpalkyeong, Maekye Yi Han-u, Eungwa Yi Won-jo, Yakyeo Yi Ik-tae

교신: 윤용택 제주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제주대학교 철학과
(E-mail:sumsaram@jejunu.ac.kr)

논문투고일 2014. 5. 25.

수정완료일 2014. 7. 25.

게재확정일 2014. 8. 10.